

李東垣 『脾胃論』에 담겨 있는 생리기반이론

최희운 · 김광중*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Basic Principles of the 『Spleen-stomach theory』 by Li Dong-yuan

Hee Yun Choi, Kwang Joong Kim*

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The basic principles in the 『Spleen-stomach theory(脾胃論)』 sets up the phases and roles of spleen-stomach (脾胃) by establishing Earth(地·坤·土) and exposing the reality of spleen-stomach(脾胃) of human body which has its own shape and form with Heaven's reality exhibited. The meaning of Earth is based on the constant meaning of Earth in 'Earth Original-Earth as extended and stable ground(坤元一正之土)' giving form and shape, and Earth's movement with circulation, then exposes itself as 'Earth as plowing land(耕種之土)' concerning both the application of Five Phases and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Earth. The Yin-Yang recognition on Earth is revealed as Yin Earth(陰土)-Yang Earth(陽土). Spleen(脾) was established as Yin Earth(陰土) and Stomach(胃) as Yang Earth(陽土). The seasonal assignment of Earth is Indian Summer(長夏), which is divided from Summer, and becomes Heat(熱), and the Yin-Yang recognition of Earth comes to be the meaning of the center and border. According to the Five Phasic recognition, it becomes Earth(土) and gets to be Dampness(濕) in accordance with Six Qi(六氣). 'Extreme Yin(至陰)' indicates Qi's status exposing the fundamental meaning regarding the role of creating, changing, and propelling Spleen-Stomach(脾胃) as a characteristic Yin Earth. Earth comprehends 'Four Courses(四維)' meaning, recognizes them as four parts of the 12 Earth's Branches(辰戌丑未) and the terminals of four seasons(四季之末), and has the meaning of the president of the change in four seasons. The theory of principle in the 『Spleen-stomach theory(脾胃論)』 stands on the basis of the 'Form Qi theory(形氣論)' and that of 'Upbearing, Downbearing, Floating, and Sinking theory(升降浮沈論)'. It manifests the theory of movement in the interaction between Form(形) and Qi(氣), and 'Qi Interior Form Exterior(氣裏形表)' indicates that Qi(氣) moves interiorly and Form(形) exteriorly.

Key words : The basic principles of the 『Spleen-stomach theory(脾胃論)』 (『脾胃論』의 基盤原理), Earth as plowing land(耕種之土), Yin Earth(陰土)-Yang Earth(陽土), Indian Summer(長夏), Extreme Yin(至陰)

서론

金元四大家중 한 사람인 李東垣은 各種疾病의 발생근원에 대해 劉完素와 張從正이 六氣의 外感作用을 강조한데 반해, 內傷 즉 體內正氣의 損傷이 主要因素가 되며 人體의 正氣는 脾胃의 元氣가 主가 된다고 인식하였다¹⁾. 李東垣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러 編의 醫論을 내놓았는데 그 중 醫學에 대한 哲學思想的 思惟가 概念的으로 잘 드러난 것이 『醫學發明』과 『內外傷辨惑論』이고, 『內經』과 『傷寒論』을 基盤으로 하여 臨床의 狀況에 맞는 治法·治方을 設定하여 자신의 理論과 臨床의 總體的 聯

關의 意味를 드러낸 것은 『脾胃論』²⁾이다.

東垣 『脾胃論』은 人體생리의 전체구성과 원리를 脾胃를 중심으로 설정하므로 그 사유맥락에는 脾胃를 전체 체계 속에 어떻게 위치시킬 것인가를 먼저 고려하고 있다. 脾胃에 대한 근본적 인식은 먼저 地·坤·土의 의미설정을 통해 '形을 가진 인간에게서 實際의 脾胃가 어떤 實在性(존재의 본질적 의미)을 담보하고 있는가를 天地의 實際를 통해서 實在性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脾胃의 位相과 역할을 설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東垣 『脾胃論』에 대한 기존의 연구³⁾⁴⁾⁵⁾⁶⁾⁷⁾⁸⁾들을 살

* 교신저자 : 김광중, 대구시 수성구 상동 165,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kwangj@dhu.ac.kr, · Tel : 053-770-2230

· 접수 : 2010/09/13 · 수정 : 2010/10/25 · 채택 : 2010/11/19

1)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p 193, 1984.

2) 李東垣. 中國醫學大系13 『脾胃論』. 서울, 여강출판사, pp 401-468, 1998.

3) 吳少禎. 李東垣生平 著作 學術考辨. 黑龍江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pp 44-46, 2003.

해보면 개념적 주제에 따른 개별적 접근방식을 통해 전체적 내용을 더듬어 가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差別性を 통해 一般性を 확보하려는 現代的 연구방법 영향에 따라, 差別성이 드러나는 특징적 요소를 중심으로 東垣의 『脾胃論』을 연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이러한 연구방식은 『脾胃論』의 醫論을 해석함에 있어 개별 개념들에 대한 差別性を 밝히는 데는 도움이 되나 『脾胃論』의 전체적인 흐름을 담은 의미들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님으로써 임상실제를 아우를 수 있는 기초이론임을 드러내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脾胃論』 醫論 연구는 전체적 맥락에 맞는 방법과 함께 개별적 접근방식을 택하여 전체맥락이 가진 一般性を 담보함과 동시에 그 속에서 差別性を 드러내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논문은 東垣 『脾胃論』의 생리이론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세우고자 『脾胃論』의 내용 중에서 脾胃의 位相과 役割을 규정하게 되는 기본적 인식내용들을 認識論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 變化와 運用의 원리를 原理論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본 론

1. 認識論

인체에서의 脾胃의 위상을 나타내는 地-坤-土의 구성을 바탕으로 한 陰土 陽土, 長夏, 至陰, 土- 四季之末의 운용체계를 東垣 『脾胃論』 인식론의 논지로 삼았다.

1) 地·坤·土

東垣은 『醫學發明』에서 “形者 坤土地 人之脾胃也 乃生長萬物也, 坤元一正之土, 耕種之土, 五行運用者也”⁹⁾라 하여 天地-地-坤土의 설정을 통해 地, 坤元一正之土, 耕種之土의 의미를 脾胃와 연관하는 형식으로 脾胃의 전체적 맥락을 구성하였다.

(1) 坤元一正之土

『周易本義』에서 “乾坤者易中純陰純陽之卦名也”¹⁰⁾라 하고, “地者 坤之象”¹¹⁾이라 하여, 地는 純陰인 坤의 象이라고 인식하였다. 이로부터 東垣은 『醫學發明』에서 “地는 가만히 있으려 하니 가만히 있으면 만물이 편안한다. 坤元一正之土는 널리 뻗어 있어 예전부터 자리를 옮긴 적이 없는 것이다.”¹²⁾라 하여 坤元이라는 一正한 土는 널리 뻗어 있으면서 움직이지는 않는 것이라 하였다. 의미를 살펴보면 “坤元”이란 만물생성의 기원에 있어 性命은 乾元에서 비롯하고¹³⁾, 만물의 생성과 地가 만물을 싣는 작용은 坤元に 의존 한다¹⁴⁾는 易傳의 만물기원·생성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地欲靜”은 “天尊地卑 乾坤定矣”¹⁵⁾라 하여 乾坤을 定한 繫辭傳의 說로부터 유래하여 坤을 地¹⁶⁾로 하고, “天地有常”하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 “天動地靜”의 說¹⁷⁾을 논한 바, 이에 따라 地는 主靜하고자 하는 것이다. “安”은 『周易本義』에 “편안하고 또 바르다는 것은 땅의 덕이다.”¹⁸⁾고 하였다. “貞”은 坤卦의 爻辭 “直方大”¹⁹⁾의 의미를 “中正하면서 아래에 있는 것을 땅의 道라 한다.”²⁰⁾는 坤의 德과 쓰임을 형용한데서 유래하여 『周易本義』에 “柔順하고 正固함은 坤의 곧음(直)이요 형체(形)를 부여함에 일정함이 있는 것은 坤의 방정함(方)이다.”²¹⁾라 注한 것으로부터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不遷”은 吳澄이 『易纂語』에서 “天運轉不已 陽常動也 地墳巖不移 陰常靜也”라 하여 땅이 굳건하고 높아 움직이지 않는 것은 陰이 항상 멈추어 있기 때문이다.²²⁾고 注한 것으로부터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결국 東垣은, ‘地—靜하고 不遷하는 土’에 함유된 위와 같은 의미들을 담고 天地를 陰陽形氣의 實體로 볼 때 地는 坤元一正之土의 의미를 지녀 이를 『脾胃論』에서 土에 대한 중심개념으로 이론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耕種之土

土의 바탕으로 四時가 운용된다. 四時의 순환·변화는 시간적으로는 계절의 변화·순환으로 드러나고, 공간적으로는 四方에 위치하여 氣의 순환·변화를 드러낸다. 四時의 순환·변화를 五行의 순환·변화로 인식하면 土는 계절적으로는 長夏로, 間氣로서의 위상을 가져 四行의 순환·변화에 참여하고 공간적으로는 중앙에 위치하여 기화·순행의 토대가 되어 四時의 근본성이면서 전체성이 된다. 天地萬物の 순환·변화는 시작(始)이 있고 마침(終)이 있는데 시작을 生이라 하고 終을 藏이라 한다. 地가 만물을 生·長함에도 始終의 때가 있는데 春에 動하여 生하고, 冬에는 藏한다. 春에 動하고 生하는 것을 東垣은 『醫學發明』에서 “움직이는 때가 있으니 봄에 (땅을)갈 때 이다.”²³⁾라 하여 耕種之土의 始終을 구분하였다. 결국 天地를 陰陽形氣의 實體로 볼 때, 土의 動하고 循環하는 바탕으로서의 의미를 五行을 운용함과 土의 물리적 특성을 연관하여 耕種之土의 의미로 드러내어 『脾胃論』에서 중심개념으로 이론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陰土陽土

土에 대한 陰陽 인식은 陰土-陽土로 드러난다. 東垣은 『脾胃論』에서 脾를 陰土로, 胃를 陽土로 설정하였다. 陰土·陽土는 다음의 방면으로 인식할 수 있다.

첫째, 陰土·陽土는 陰靜陽動²⁴⁾의 이치에 따라 脾는 “陰土이다. 주로 靜하여 움직이지 않는다.”²⁵⁾하고, 胃는 “陽土이다. 주로

4) 吳文設, 王蘭玉, 略論李東垣脾胃升降功能. 四川中醫. 24(1):38-39, 2006.

5) 孫愛萍, 淺論脾胃是氣機升降之樞紐. 中醫藥學刊. 5(2):580-581, 1986.

6) 劉愛明, 『脾胃論』陰火辨析. 貴陽中醫學院學報. 14(4):39-41, 1992.

7) 徐子評, 對李杲“火傷元氣”學術思想的幾點認識. 湖北中醫雜誌. 1(1):5-8, 1979.

8) 蔡小平, 談甘溫除熱之理法方藥. 浙江中醫藥大學學報. 20(6): 8, 1996.

9) 陳柱鈞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醫學全集 『醫學發明』. 서울, 법인문화사, p 922, 2007.

10)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 周易本義. 서울, 여강출판사, p 529, 1999.

11) 上揭書, p 59.

12) 『醫學發明』前揭書, p 922. “地欲靜 靜則萬物安 坤元一正之土 亘古不遷者也”

13) 朱子, 白殷基 譯註. 前揭書, p 30. “乾道變化 各正性命 保合太和 內利貞”

14) 上揭書, pp 57-58. “象曰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地厚載物”

15) 上揭書, p 527.

16) 上揭書, p 59. “地者 坤之象”

17) 莊子, 안동립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p 348, 1993. “其動也天 其靜也地”

18) 朱子, 白殷基 譯註. 前揭書, p 59. “安而且貞 地之德也”

19)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周易傳義 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所, p 196, 1998.

20) 上揭書, p 196. “中正在下 地之道也”

21) 朱子, 白殷基 譯註. 前揭書, p 65.

22) 陳鼓應.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p 267, 1996.

23) 『醫學發明』前揭書, p 922. “動之有時 春耕是也”

24) 朱子, 白殷基 譯註. 前揭書, p 529. “動者陽之常 靜者陰之常”

動하여 쉬지 않는다.”²⁶⁾하여脾를陰土로 인식하고,胃를陽土로 인식하였다. 그러므로脾는靜하여 만물을 편하게 하고,天地萬物의有形之物의 整體를 구성한다.胃는水穀을 받아들이고傳化하여人身의氣血이胃에서부터 비롯되니 이는胃의陽動함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

둘째,陰은質이니 바탕을 이루며,陽은氣이니 그로 인해 바탕이 드러난다.脾는有形之士²⁷⁾로서質이 되고 바탕이 되며,胃는氣로서 드러나니脾가胃氣를 받지 못하면²⁸⁾ 자신의 속성을 실현할 수 없다.胃氣는陽이어서 전신에 영양물질을 수포하여形을 이루는 바탕을臟腑·經絡·四肢에 제공한다.

셋째,陰土·陽土의氣가升降하는 이치는,脾는地로서그氣의 드러남은“地氣上爲雲”²⁹⁾의 이치에 따라 상승한다.胃는六腑中 하나로서六腑는天의位³⁰⁾에 있고,그氣는天을象³¹⁾하므로 그氣의 드러남은“天氣下爲雨”³²⁾의 이치에 따라下降한다.

넷째,陰土·陽土 인식은干支相合에서도 드러난다.土의天干配屬은戊己土이다.戊는陽干이고,己는陰干이다.戊濕은陽土로서胃에 해당하고,己土는陰土로서脾에 해당³³⁾한다.東垣은戊濕과己土에 각각氣와味를 배속하여,戊는陽干이므로陽土인戊濕은氣로 드러나는바,寒熱溫涼의四氣중에서平하다.平하므로四氣를兼³⁴⁾할 수 있고,己는陰干이므로陰土인己土는味로 드러나는바,鹹味이고鹹味는辛甘酸苦的味를兼³⁵⁾할 수 있다.

東垣은“脾는土이다.中央을 다스린다.”³⁶⁾라 하였는데, 이는土가五行의方位配屬에서 중앙에 위치함으로써四方과通하는 중심이 됨을 말한 것이다.그位가四方과通하는中央이므로四氣를兼하고,四味를兼하니 그 까닭이 이에 있음을 알 수 있다.氣味를 중심으로 한脾胃의陰土·陽土 인식은“陽은氣이고,陰은味이다.”³⁷⁾라는 인식이脾胃를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脾胃가 바로氣味가出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3) 長夏

東垣은「內經仲景所說脾胃」에서“藏氣法時論에서脾는長夏를主한다고 하였다.”³⁸⁾라 하여脾胃에 대한 인식을長夏로 설정하였다.長夏는土에 대한五行의四時配屬³⁹⁾이다.春夏秋冬의四時配屬에서夏를 나누어夏와長夏로分하여配屬⁴⁰⁾한다.

이에 따라脾胃의四時配屬을長夏에 두었다.四時は계절변화에 대한陰陽인식에 바탕을 둔 사유이다.

四時は春夏를陽으로秋冬를陰으로 인식한다.陰陽에 대한 고대의 인식은寒帶를陰으로熱帶를陽으로 인식하여寒熱을陰陽의氣的 상태로 인식한다.長夏는夏를分한 것이므로熱의 성질을 갖는다.陰陽이四象으로 분화하면寒熱溫涼의氣的 상태를 드러내게 되어春溫·夏熱·秋涼·冬寒으로 설정되고,그氣化는春·生,夏·長,秋·收,冬·藏한다. 여기에長夏가 설정되면四時的 위상관계는 비록夏를二分하였다 하더라도四時的陰陽之分이位를 가진 경계를 설정하게 되는바 이것이四時에서의長夏之節이다.

그러므로東垣은長夏之節을升浮하는溫熱한氣가降沈하는涼寒한氣로 바뀌는⁴¹⁾, 즉陰陽이 전환하는 시기로 설정하여四時的氣的 순환이“氣는 봄에 오르고(升) 여름에 가장 높은 곳(天의位)에 떠 있으며(浮),長夏之節에는化하여, 가을이 되면 하늘에서 내려오기(降) 시작하여 겨울에는 땅 속으로 가라앉는다(沈)”⁴²⁾고 하여長夏之節의 위상과 역할을 중앙으로, 경계로 설정하게 된 것이다.長夏에 대한五運六氣的 인식은濕土⁴³⁾로 드러난다.木·風,火·暑,土·濕,金·燥,水·寒⁴⁴⁾이 짝을 이루어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니長夏는土이면서濕이다.

결국長夏에 대한 계절인식은夏를分하여長夏로 설정한 바熱이 되고,四時的陰陽의 인식에 따라 중앙·경계가 되고,五行의 인식에 따라土가 되고,六氣的 인식에 따라濕⁴⁵⁾이 되니 그氣의 상태는平氣.太過⁴⁶⁾.不及하는象을 가진다.

4) 至陰

至陰에 대해東垣은“脾는至陰으로 근본이地이고有形之士이다.”⁴⁷⁾라 하여土를至陰으로 인식하였다.至陰은『素問』「六節藏象論」의“脾胃……至陰之類”⁴⁸⁾에서 나온 문장이다. 즉四藏의位와用을陰陽四象의分化로 설명하여肝을陽中之少陽,心을陽中之太陽,肺를陽中之太陰,腎을陰中之少陰으로 분류하고五行으로 확장하면서脾胃 등을至陰으로 분류하여五臟六腑의陰陽位相을 설정한데서 유래한 개념이다. 여기에서陰陽은天地를象하고 있다.四象은臟腑의 역할과陰陽循環의 표현이다.天地陰陽의 관점에서肝,心,肺는天으로腎,脾胃 등은地로 인식한 것이다. 그러므로至陰은陰에 속하므로 그本을地라한 것이다.至陰은四象으로 구분된 것이 아니라五行으로 설정된 것이므로土라한 것이다.土中の陰을 표현하고 있으므로有

25)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 前掲書. p 442. “陰土也 主靜而不動”

26) 上掲書. p 442. 陽土也 主動而不息

27) 上掲書. p 443. “脾爲至陰 本乎地也 有形之士”

28) 『脾胃論』 「脾胃勝衰論」 前掲書. p 411. “脾受胃之稟 行其氣血也”

29) 『脾胃論』 「陰陽升降論」 前掲書. p 447.

30)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 前掲書. p 442. “六腑者在天”

31) 『脾胃論』 「脾胃虛實傳變論」 前掲書. p 403. “胃·大腸·小腸·三焦·膀胱此五者 天氣之所生也 其氣象天 故瀉而不藏”

32) 『脾胃論』 「陰陽升降論」 前掲書. p 447.

33) 『脾胃論』 「藏氣法時升降浮沈補瀉圖」 前掲書. p 406. “戊土在人 以胃應之”, “己土在人 以脾應之”

34) 上掲書. p 406. “戊土 其本氣平 其兼氣溫涼寒熱”

35) 上掲書. p 406. “己土 其本味鹹 其兼味辛甘酸苦”

36) 『脾胃論』 「內經仲景所說脾胃」 前掲書. p 418. “脾者 土也 治中央”

37) 이경우 譯. 編注譯解黃帝內經素問1. 서울, 여강출판사, p 159. 1994.

38) 『陰陽應象大論』 “陽爲氣 陰爲味”

39) 『脾胃論』 「內經仲景所說脾胃」 前掲書. p 419. “藏氣法時論云 脾主長夏”

40) 김광중, 김완희.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지사, p 10, 1996.

41) 앤거슨 그레이엄, 나성 옮김. 도의 논쟁자들. 서울, 새물결, p 578, 2003.

41) 『脾胃論』 「天地陰陽生殺之理 在升降浮沈之間論」 前掲書. p 446. “春氣溫 夏氣暑熱 秋氣清涼 冬氣冷冽”

42) 李杲 原著,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졸업준비위원회 譯. (國譯)內外傷寒論 蘭室秘藏. 서울, 대성문화사, pp 83-84, 1993. “四時者 是春升夏浮 秋降冬沈 乃天地之升降浮沈化者 脾土中造化也 是爲四時之宜也”

43) 『脾胃論』 「長夏濕熱 胃困尤甚 用清暑益氣湯論」 前掲書. p 432. “長夏濕土”

44) 김광중, 김완희. 前掲書. p 8.

45) 『脾胃論』 「用藥宜禁論」 前掲書. p 417. “人稟天之濕化而生胃也 胃之與濕 其名雖二 其實一也”

46) 『脾胃論』 「內經仲景所說脾胃」 前掲書. p 418. “土太過 其象長夏”

47)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 前掲書. p 443. “脾爲至陰 本乎地也 有形之士”

48) 이경우 譯. 前掲書. 「六節藏象論」. pp 317-318.

形之土가 된다.

至陰之氣에 대해 東垣은 “脾者 陰土也 至陰之氣 主靜而不動”⁴⁹⁾라 하여 陰土의 氣의 상태를 至陰之氣로 인식하였다. 陰土는 坤의 象을 담은 坤元之土이니 形의 기반이 되어 만물을 싣고 만물이 안정된다. 動靜에 대한 陰陽인식은 陰은 靜하고 動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至陰之氣는 陰土·至陰·主靜而不動이 가지는 생성·변화·추동의 기반적 의미를 脾胃의 形質의인 陰土로 설정하여, 脾胃의 설정에 있어 脾胃의 생성·변화·추동하는 역할에 대해 기반적 의미를 드러내는 氣의 상태로 표현하고 있다.

5) 土·四季之末

東垣은 「藏氣法時 升降浮沈 補瀉圖」에서 脾의 四季之末의 속성에 대해 “五行은 서로 낳으니 木火土金水가 좇아서 돌아감에 끝이 없다. 오직 脾만이 正形이 없어 四季의 끝에서 각각 18일 씩 왕성하여 四臟을 낳는다. 四季는 辰戌丑未이다. 人身의 形을 九野에 대응하면 왼쪽 발은 立春을 주관하고 丑의 위치이다. 왼쪽 손은 立夏를 주관하고 辰의 위치이다. 오른쪽 손은 立秋를 주관하고 未의 위치며, 오른쪽 발은 立冬을 주관하고 戌의 위치이다.”⁵⁰⁾고 하였다. 土를 干支와 배합하여 인식하였다. 四時는 春夏秋冬이 五行相生의 순서로 끝없이 되풀이 된다. 四季는 辰戌丑未를 말하니 四時의 끝 달(음력으로 3월, 9월, 12월, 6월이다.)이고 十二地支의 五行配屬에서 土에 해당한다. 寅卯월에 木이 왕성하고, 巳午월에 火가 왕성하고, 申酉월에 金이 왕성하며, 亥子월에 水가 왕성하며, 辰戌丑未월에 土가 왕성하다. 節氣의 九宮方位 配屬에 의하면 立春, 立夏, 立秋, 立冬이 四維(四隅; 네 개의 모퉁이 자리-東北方, 東南方, 西南方, 西北方)의 위치⁵¹⁾에 있고 春分, 夏至, 秋分, 冬至는 四正(東 南 西 北)의 위치⁵²⁾에 해당한다.

立春, 立夏, 立秋, 立冬은 각각 丑, 辰, 未, 戌의 위치에 해당하니 이는 辰戌丑未가 四維에 해당함을 말한다. 이에 따르면 四時에 따른 五行의相生은 木土·火土·金土·水土의 순서가 된다. 四維의 位를 갖는 四季의 辰戌丑未土는 각 계절의 경계(처음이자 끝)에서 마무리와 완성을 담당함과 동시에 다음 계절의 시작을 담당한다. 경계에 있는 土로서 변화를 주도하게 됨을 의미한다. 四時의 유행함이 결국 土에 의해 주도되니 변화의 주체자로서 변화 속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서 “樞紐”⁵³⁾인 土를 의미한다.

따라서 脾에 대한 五行인식은 土이므로 辰戌丑未의 속성을 가진다. 辰戌丑未(四季)달의 끝 18일 동안 자신이 왕성해져서 四臟을 생한다. 脾는 春夏秋冬 모두에 왕성해지는 때(四季之末 18일)가 있으니 하나의 時에 脾를 배속할 수 없다⁵⁴⁾. 四時는 四臟을 기르는데, 四時마다 길러진 脾가 곧 四臟을 생한다. 따라서 脾는 春夏秋冬, 즉 四時를 모두 주관하므로 특정한 時를 주관하지

않는다. 四臟을 낳는 脾는 形의 기반이 되어 四臟의 形을 생하고 유지하며, 四臟 상호간의 기능활동이 협조하고 연관하는 바탕이 되어, 전체성 속에서 갈무리 하므로 또한 변화의 주체자이다.

2. 原理論

인체생명활동의 기틀과 그 변화원리에 있어, 人을 포함한 天地萬物의 實際는 形이 外現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그 변화기틀을 설명하는 形氣論과 그 변화의 순환과정에 중점을 둔 升降浮沈論을 東垣 『脾胃論』 원리론의 논지로 삼았다.

1) 形氣

東垣 『脾胃論』의 이론형성의 근저에는 形氣論이 있다. 形氣는 天地萬物의 實際에 대한 陰陽論의 인식이다. 形氣에 대한 東垣의 인식은 『醫學發明』에서 그 구체적 사유기제가 드러나는데 “形氣는 있음과 없음의 象이니 큰 것으로 말하자면 天地兩儀를 갖춘 것이고, 작은 것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陰陽인 氣血이다. 天地物類(자연의 사물)로 論하자면, 形은 坤이고 土이며 땅(地)이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脾胃에 해당된다. 이는 곧 만물을 낳고 기른다.”⁵⁵⁾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장에서는 形氣論의 인식·사유 기제에 따라 形氣를 ‘有無之象’, ‘天地·兩儀’, ‘氣裏形表’, ‘陰陽·氣血’, ‘人之脾胃’로 구체화하여 그 원리와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有無之象

東垣은 形氣를 “有無之象”⁵⁶⁾이라 하였다. 즉 形氣를 ‘있고 없음의 象’으로 구분하여 인식하였다. 天地萬物은 實際가 있으며 實際는 形氣를 갖추고 있다. 實際의 形을 ‘有之象’으로, 實際의 氣를 ‘無之象’으로 구분하여 인식한 것이다. 이를 實際에 대한 形氣論의 인식으로 통합하면 形氣는 “無形之氣”⁵⁷⁾와 “有形之物”⁵⁸⁾로 되는 것이다. 有形과 無形에 대해 老子는 “天下萬物은 有에서 생기고 有는 無에서 생긴다.”⁵⁹⁾고 하였고, 張載는 道의 實在性을 “우리가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없는 實在를 太虛·無形·無感으로,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는 實在를 有形·有感”⁶⁰⁾으로 개념화 하였다. 결국 形의 ‘있음의 象’이란 감각기관으로 인식할 수 있으므로 物로 드러나고, 氣의 ‘없음의 象’이란 實在하여 인식할 수 있지만 감각기관으로 지각할 수 없는 것을 氣로 드러내었다. 그러므로 形氣란 天地萬物의 實在의 원리를 통해 實際性을 드러내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天地·兩儀

形氣를 갖춘 實體 중 가장 큰 것이 天地라는 東垣의 논지는 陰陽·形氣的 實體로서의 天地에 대한 인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유방식은 朱子の 『周易本義』에서 잘 표현되어 있는데 朱子는 “陽의 性이 썩씩함(健)을 보고서 그 形을 이룬 것의 큰 것을

49)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 前揭書. p 442.

50) 『脾胃論』 「藏氣法時升降浮沈補瀉圖」 前揭書. p 405. “五行相生 木火土金水 循環無端 惟脾無 正形 於四季之末 各旺一十八日 以生四臟 四季者 辰戌丑未 是也 人身形 以應九野 左足 主立春 丑位 是也 左手 主立夏 辰位 是也 右手 主立秋 未位 是也 右足 主立冬 戌位 是也”

51) 九宮圖에 따르면 四維에 해당하는 數는 偶數(2,4,6,8)이니 陰數이고 四正에 해당하는 數는 奇數(1,3,7,9)이니 陽數이다. 中央의 數는 5이다.

52) 이경우 譯.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3. 서울, 여강출판사, p 483, 2000.

53) 朱熹, 강상섭 해설.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p 106, 1999.

54) 『脾胃論』 「內經仲景所說脾胃」 前揭書. p 418. “脾者 土也 常以四時長四臟 各十八日寄治 不得獨主於時也”

55) 『醫學發明』 前揭書. pp 922-923. “形氣者 有無之象也 以大言之 具天地兩儀者也 以小言之 則人之陰陽 氣血也 以天地物類論之 則形者 坤土地 人之脾胃也 乃生長萬物也”

56) 『醫學發明』 前揭書. p 922.

57) 『脾胃論』 「飲食傷脾論」 前揭書. p 456. “無形之氣也”

58) 上揭書. p 456. “有形之物也”

59) 王弼, 임채우 옮김. 왕필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p 163, 1997. “天下萬物 生於有 有生於無”

60) 정용환. 장재의 철학. 서울, 경인문화사, p 89, 2007.

天으로 삼았다.”⁶¹⁾, “陰이 形을 이룬 것은 地보다 큰 것이 없다.”⁶²⁾고 하고, “天地는 陰陽과 形氣의 실체다.”⁶³⁾라 하였다. 形氣를 天地·陰陽·兩儀의 실체로 보는 이러한 관점을 좀 더 세분하여 이해하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진다.

첫째, 天地·兩儀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易傳은 兩儀를 天地·乾坤·淸濁으로 인식⁶⁴⁾하고 있다. 易傳의 天地·兩儀에 대한 사유·인식은 象傳에서 乾卦와 坤卦를 해석⁶⁵⁾하면서 “始는 氣가 시작되는 것이고, 生은 形이 시작되는 것이다.”⁶⁶⁾, “맑고 가벼운(淸) 陽이 위에서 이룬 것이 天이고, 무겁고濁한(重濁) 陰이 아래에서 이룬 것이 地이다.”⁶⁷⁾라고 한 데서 살펴 볼 수 있다. 즉 乾元과 坤元은 두 개의 元으로서 純陽과 純陰이고, 그 象이 天地이며, 맑고 가벼운 陽氣가 위에서 끊임없이 선회함이 天이고, 무겁고濁한 陰氣가 아래에서 形을 이룬 것을 地로 인식한 것이다. 따라서 天은 陽과 氣의 실체이고, 地는 陰과 形의 실체이며, 天陽과 地陰이 交通하여 만물을 낳고 변화시키니, 天氣가 行하면 만물이 氣를 시작하고, 地氣가 行하면 만물이 形을 시작한다. 이에 天은 無形之氣의 바탕이 되고, 地는 有形之物의 바탕이 되어 天地萬物을 資始·資生하는 것이다. 이것이 東垣의 ‘無形之氣’, ‘有形之物’의 의미이다.

둘째, 形氣의 실체로서 가장 큰 天地는 上下의 位를 가진다. 이는 易傳의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乾坤이 거기에서 정해졌다. (하늘과 땅이) 낮고 높아서 貴賤이 자리 잡았다. (하늘과 땅이) 움직이고 정지함에 일정한 법칙이 있어 剛柔가 거기에서 나뉘었다.”⁶⁸⁾를 풀이한 朱子の “天地는 陰陽과 形氣의 실체이고, 乾坤은 易중에 純陽과 純陰의 卦名이다. 卑高란 天地萬物의 上下의 위치이고, 動이란 陽의 법칙이고 靜이란 陰의 법칙이다.”⁶⁹⁾에서 말한 天地의 位相과 動靜하는 원리를 밝힌 것이다. 또한 맑고 가벼운(淸) 陽이 위에서 이룬 것이 天이고, 무겁고濁한 陰이 아래에서 이룬 것이 地가 된다. 즉 天은 位가 上이고 陽과 氣의 실체이며, 地는 位가 下이고 陰과 形의 실체이다. 陰陽二氣로 말하면 天氣는 上에 居하고 地氣는 下에 居하며, 形氣로 말하면 天은 氣로서 上에 위치하고 地는 形으로서 下에 위치한다.

셋째, 天地는 陰陽이면서 陰氣陽氣의 작용주체이다. 陰陽은

消息·闔關하고 陰氣와 陽氣는 相互交通한다. 陰陽은 天地의 사이에 가득하니, 그 消息과 闔關은 만물을 始終하고 눈에 닿는(觸目)사이에 形이 있고 形이 없음⁷⁰⁾이 이것에 의존한다. 陰陽은 본래 一氣⁷¹⁾이다. 『莊子』 天地편에서 “元氣의 운동이 잠시 멈춰서 만물을 낳고, 사물이 형성되면서 모양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形이라 한다.”⁷²⁾고 하였고, 『朱子語類』에 復卦의 의미를 “元의 氣가 亨通하여 發散하여 모든 사물이 形을 이룬다.”⁷³⁾고 하였다. 또한 一氣의 관점에서 보면 形이란 氣의 聚한 바이고, 氣란 形의 散한 것이 된다. 天地사이의 一氣가 나누어진 것이 陰陽이다. 天地를 陰陽의 관점에서 보면 陰陽은 消息·闔關하니 消長, 出入, 進退, 屈伸, 動靜이다. 이는 陰氣·陽氣의 작용이다. 天地사이에 陰陽의 氣가 相互交通하여 순환하는데, 이는 氣가 亨通하여 發散하는 것이다. 즉 陰陽이 變과 化⁷⁴⁾의 과정을 통해 통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을 卦의 의미로 보면 泰卦⁷⁵⁾의 象으로 地의 陰氣가 下降하고 天의 陽氣가 上升하여 交流·交通한다. 天地의 실제적 측면에서 보면 天은 陰氣下降하고 地는 陽氣上升한다. 水火升降의 측면에서 이해하면 水升火降이다. 東垣은 이를 體用의 관점에서 陰體陽用, 陽體陰用이라 하였다.

(3) 氣裏形表

氣裏形表란 形氣의 天地·兩儀가 구성하는 원리이며 陰陽인식이다. 人을 포함하는 모든 天地萬物은 形氣의 존재로서 氣裏形表의 원리와 구성을 갖는다.

① 氣裏形表의 實在相

形體를 가진 만물을 內外的 관계로 인식하면 氣裏形表란 形氣의 구성의 측면으로 氣가 안에 있고 形이 곁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氣裏形表를 陰陽의 공간적 위상에서 구조적 측면으로 보면 氣는 裏에 있어 中(속)이 되고 形은 表에 있어 外(곁)가 된다. 氣의 드러남이 外形으로서의 形이고, 形은 氣의 聚한 바 이므로 그 바탕에는 氣가 있어 氣는 속이 된다. 易의 泰卦에서 天地는 상호 교통하여 만물을 생성·순환이 원활하여 정상적인 소통이 가능해 진다. 天地가 交通하는 陰陽관계는 地-上, 天-下의 象으로 陰-地-外, 陽-天-內로 “陽이 안에 있고 陰이 밖에”⁷⁶⁾ 있다. 이에 따라 陽-氣는 裏에, 陰-形은 表에 있게 되는 것이 實在의 모습이 되는 것이다.

② 氣裏形表의 運動原理

氣裏形表란 形氣상호간의 氣의 운동원리를 표현한 것이다. 形氣의 만물에서의 實際의 표현은 크게 보면 天地로 드러난다. 즉 天地가 形氣의 실체라는 것이다. 天地구조는 氣가 表에 있고, 形이 裏에 있는 구조(氣表形裏)이다. 즉 形氣內外로 天地의 구조를 보면 地-內-形이고, 天-外-氣이다. 이것이 天地의 실제구조다. 이는 “陰은 안(內)에 있고, 陽은 밖(外)에 있다.”⁷⁷⁾의 陰陽 구조이

61) 朱子, 白股基 譯註. 前揭書, p. 21. “見陽之性健 而其成形之大者爲天”

62) 上揭書, p. 56. “陰之成形 莫大於地”

63) 上揭書, p. 529. “天地者 陰陽形氣之實體”

64) 易傳의 兩儀와 四象에 대한 역대주석가들의 입장은 아래 도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兩儀	四象
우번(虞翻)	天地, 乾坤	四時(春夏秋冬)
공영달(孔穎達)	天地	金木水火, 7·8·9·6
유목(劉牧)	淸濁(淸者爲天,濁者爲地)	9-老陽,6-老陰,7-少陽,8-少陰
호원(胡瑗)	天地	金·木·火·水
주둔이(周敦頤)	陰陽(分陰分陽)	언급없음
소옹(邵雍)	陰陽	陰陽剛柔(陰陽-天의 四象,剛柔-地의 四象)

65) 朱子, 白股基 譯註. 前揭書, pp. 28, 57. “象曰 大哉乾元 萬物資始 乃統天”, “象曰 至哉坤元 萬物資生 乃順承天”

66) 上揭書, pp. 57, 527. “始者 氣之始 生者 形之始”

67) 朱熹, 강상섭 해설. 前揭書, p. 60. “所謂天者 陽之淸而爲乎上者也 所謂地者 陰之濁而爲乎下者也”

68) 朱子, 白股基 譯註. 前揭書, p. 527.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 貴賤位矣 動靜有常 剛柔斷矣”

69) 上揭書, p. 529. “天地者 陰陽形氣之實體 乾坤者 易中純陰純陽之卦名也”

70) 上揭書, p. 552.

71) 야마다케이지, 김석근 옮김. 朱子の 自然學. 서울, 통나무, p. 110, 1991. 재인용 “陰陽只是一氣”

72) 莊子, 안동립 譯註. 前揭書, p. 321. “留動而生物 物成生理謂之形”

73) 朱子, 白股基 譯註. 前揭書, p. 238.

74) 上揭書, p. 529. “陰變爲陽 陽化爲陰者也” 變은 陰으로부터 陽으로 가는 것이요, 化는 陽으로부터 陰으로 가는 것이다.

75) 上揭書, p. 145. “泰 通也 爲卦天地交而二氣通 故爲泰 正月之卦也”

76) 成百曉 譯註. 前揭書, pp. 341-342. “泰 天地交而 萬物通也 內陽而外陰”

77) 이경우 譯. 前揭書. 「陰陽應象大論」, p. 194. “陰在內 陽在外”

다. 天은 無形의 氣이고, 地는 有形의 質이다. 天地의 交感으로 만물이 생성하는데 天地의 交感은 地가 上의 位에 있고 天이 下의 位에 있을 때에야 가능하다⁷⁸⁾. 이것은 實際의 理致의 象(모습·實在)이다. 즉 氣裏形表하는 이치는 氣가 外에 있고 形이 內에 있는 象이 실제의 形과 氣가 交感하는 象으로 설정되어야 그 원리가 설명된다. 氣는 裏를 향해 운동하고 形은 外를 향해 운동하여 氣는 裏에 있게 되고 形은 外에 있게 된다. 이것이 形氣의 상호교통함을 이루는 구조다. 이를 天地의 上下구조 속에서 이해하면 地·陰의 形은 外를 향해 운동하므로 上升하여 上, 즉 外로 향하고 天·陽의 氣는 內를 향해 운동하므로 下降하여 下, 즉 內로 향하여⁷⁹⁾ 形과 氣가 서로 交感하여 만물이 생성, 성장, 소멸하는 실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人身에 있어 形氣論의 관점은 人身의 상태가 外形內氣로 드러나지만 人身의 形氣운동은 內의 形이 외부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外의 氣가 內로 끊임없이 流入되어 蘊蓄되어야 이로부터 形·化 할 수 있게 됨을 알 수 있다.

(4) 人之脾胃

東垣은 形이란 地坤土이고, 이것이 人의 脾胃⁸⁰⁾라 하였다. 東垣은 자신의 形氣, 天地·兩儀, 氣裏形表, 氣血에 대한 形氣論의 입장을 脾胃로 總和하였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人, 形者 坤土地

形은 坤土地에 해당한다. 坤은 純陰의 卦로서 陰을 말한다. 만물이 이를 의지해 생긴다. 地는 陰에 해당하고 陰은 靜함이 법칙이므로 地는 靜하여 만물을 안정되게 싣고 있다. 坤元一正之土는 예부터 움직인 적이 없는 一正之土로서 陰의 靜함을 법칙으로 하여 만물을 안정되게 싣고 있는 地를 설명하는 것이다. 地는 形으로서 陰의 靜함을 법칙으로 한다는 것이다. 土는 耕種之土이다. 만물이 生·長·收·藏하는 곳으로서의 地를 말한다. 天의 四時 운행에 따라 봄에 땅을 갈아서 씨 뿌리면 그로부터 生長收藏이 일어나니 곧 오행이 운용하는 땅이 되는 것이다. 이는 만물의 변화가 시작되는 땅으로서 動하는 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形에 해당하는 地는 動靜을 갖춘 土(坤元一正之土, 耕種之土)로서 사람의 脾胃에 해당하는데 만물을 生長한다고 하였다.

② 脾胃-氣血의 根源

脾胃에서 나온 清濁之氣가 人身의 陰陽인 氣血을 이루는 것에 대해 말한 것이다. 脾胃는 (陽)氣와 (陰)血의 근원이 된다. 脾胃에서 出한 清氣가 상승하여 無形의 (陽)氣를 이루고, 脾胃에서 出한 濁氣는 하강하여 有形의 (陰)血을 이룬다. 清濁之氣는 모두 脾胃에서 出한 榮氣이다. 榮氣는 水穀의 氣味가 바뀐 것으로 온몸을 영양한다. 清陽은 地氣가 오른 것으로 水穀의 精氣이며 氣海이고, 七神이며 元氣이고 아비다. 濁陰은 天氣가 下降한 것으로 五穀五味의 精이며 五味가 바뀐 것이고, 血榮이며 神明을 유지한다. 血이 모인 곳이고 어미이다.⁸¹⁾ 즉 水穀의 氣味·榮氣가 인

체의 氣를 이루고 전화하여 血이 되어 氣血이 인체의 생명활동을 수행함을 말한 것이다. 이것이 脾胃의 氣血이다.

③ 脾胃-脾形·胃化

東垣은 「氣運衰旺圖說」에서 “脾形⁸²⁾-胃化⁸³⁾”라고 하였다. 사람의 形氣가 脾胃라는 인식에서 形氣의 상호관계를 脾胃와 연관하면 脾는 形으로 胃는 氣로 되어 脾形·胃化하는 것이다. 이에 「陰陽壽夭論」에서는 생명활동의 內·外적 근본이 되어 氣의 升降·出入하는 氣立·神機에 대해서도 “地氣의 形氣·氣化이고 人의 脾胃⁸⁴⁾”라고 한 것이다. 胃는 陽이니 끊임없이 動하는 陽氣로 氣化를 시작하고 주도하며 脾는 陰이니 靜하는 至陰之氣로 成形을 주관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脾胃의 形氣관계는 氣-內, 形-外로 氣裏形表하는 관계이므로 “脾胃가 內에서 傷하면 그 氣를 傷한 것이 되고, 外에서 감촉되면 그 形을 傷한 것⁸⁵⁾이 된다. 形氣는 陰氣·陽氣의 관계이므로 “脾胃가 부족한 것은 陽氣不足하고 陰氣有餘한 것⁸⁶⁾으로 해석 될 수 있다. 形氣는 天地의 相互交通으로 생성·순환하고 사람의 脾胃이므로 “天地의 邪氣에 感觸하여 病이 생기는 것은 脾胃를 따라 病이 생기는 것⁸⁷⁾이다. 그러므로 人의 形氣는 脾胃가 된다.

④ 脾胃-形氣循環

사람의 形氣·氣血의 순환은 脾胃에 바탕하고 胃로부터 시작된다. 胃로부터 元氣의 순행이 시작되면 六腑는 胃로부터 氣를 稟賦⁸⁸⁾ 받는다. 이때의 六腑는 天에서의 風寒暑濕燥火⁸⁹⁾이고, 無形之氣⁹⁰⁾에 해당한다. 六腑는 각기 氣를 내고(氣化), 有形之物에 해당하는 五臟의 氣를 기르니 五臟은 六腑로부터 각각 氣化한 氣를 받아⁹¹⁾ 위로는 九竅를 통하게 하고⁹²⁾, 外로는 十二經과 皮膚·血·脈·筋骨을 자양⁹³⁾한다. 이것이 胃로부터 시작된 人身의 形氣·氣血순환의 모습이다.

2) 升降浮沈

東垣 『脾胃論』의 升降浮沈論에 대한 이해는 天地·陰陽·四時·五行에 대한 자신의 立論인 『脾胃論』 「天地陰陽生殺之理在升降浮沈之間論」에서 드러난 바를 바탕으로 그 구조와 원리를 분리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1) 升降浮沈論의 構造

會也 母也”

82) 『脾胃論』 「氣運衰旺圖說」前揭書. p 420. “土脾形 火心神 木肝血 皆大盛 上乘生長之氣”

83) 上揭書. p 420. “濕胃化 熱小腸長 風膽生 皆陷下不足”

84) 『脾胃論』 「陰陽壽夭論」前揭書. p 446. “根於外者 名曰氣化 氣止則化絕 根於內者 名曰神機 神去則機息 皆不升而降也 地氣者 人之脾胃也”

85) 『脾胃論』 「飲食勞倦所傷 始爲熱中論」前揭書. p 422. “內傷脾胃 乃傷其氣 外感風寒 乃傷其形”

86) 『脾胃論』 「脾胃勝衰論」前揭書. p 409. “夫脾胃不足 皆爲血病 是陽氣不足 陰氣有餘”

87) 『脾胃論』 「脾胃虛實傳變論」前揭書. p 405. “天地之邪氣 感則害人 諸病從脾胃而生 明矣”

88)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前揭書. p 442. “六腑受氣於胃”

89) 上揭書. p 442. “六腑者 在天 爲風寒暑濕燥火”

90) 上揭書. p 442. “六腑者 無形之氣也”

91)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 台北:五洲出版社. p 106, 1984. “五臟之氣 各受一腑之化”

92)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前揭書. p 442. “上通九竅”

93)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脾胃論』 「脾胃虛則九竅不通論」前揭書. p 106. “五臟之氣 滋養皮膚 血脈 筋骨”

78) 天은 陽이므로 陽升하고 地는 陰이므로 陰降하는게 자연의 이치다.

79)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관한 研究. 大邱韓醫大學, 博士學位論文. p 89, 2003.

80) 『醫學發明』前揭書. p 922. “形者 坤土地 人之脾胃也 乃生長萬物也”

81) 『脾胃論』 「陰陽升降論」前揭書. p 447. “清陽成天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水穀之精氣也 氣海也 七神也 元氣也 父也 濁陰爲地 疊陰成地雲出天氣 雨出地氣 五穀五味之精 是五味之化也 血榮也 維持神明也 血之府

東垣 『脾胃論』의 구조는 天地·陰陽·四時·四象·五運六氣의 이론들을 하나의 체계 속에 구조화하였는데, 이들의 구조적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 구조는 天地上下로 구조화 되어있다. 天은 위에 있고 地는 아래에 있어 天은 太虛와 결부되어 있으며 地는 泉下를 포함한다. 太虛·天下之中에 天地人이 실제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天地만물과 사람(天地人)의 氣의 升降浮沈은 太虛-天, 泉下-地의 구조 속에서 一氣가 무단하게 순환하는 圓의 형태로 드러난다.

둘째, 升降浮沈에 대한 陰陽의 인식은 陽升陰降의 이치에 따라 左升右降으로 구조화 되어 左의 天之分은 天氣가 主之하여 “天以陽生陰長”하는 구조로, 右의 地之分은 地氣가 主之하여 “地以陽殺陰藏”하는 구조로 된다. 四時陰陽의 인식은 天之分인 左半部는 春-升, 夏-浮로 升浮하고, 地之分인 右半部는 秋-降, 冬-沈으로 降沈한다. 陰陽의 體用관계는 左半部는 陰用陽으로 그 활동은 陽에 속하나 그 내용은 陰이 升하는 구조이고, 右半部는 陽用陰으로 그 활동은 陰에 속하나 그 내용은 陽이 降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셋째, 東垣의 一年 四時순환에 대한 인식은 병렬적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는 계절변화의 순환 속에 구조화 되어 있다. 歲半以前은 天氣가 主之하여 陽生陰長의 이치에 따라 升浮하고, 歲半以後에는 地氣가 主之하여 陽殺陰藏의 이치를 따라 降沈한다.

넷째, 東垣의 四象에 대한 陰陽인식은 圓의 左半은 天之分으로 陽이요, 右半은 地之分으로 陰이다. 四象구조형식은 少陽-春(左下), 太陽-夏(左上), 太陰-秋(右上), 少陰-冬(右下)으로 되어 있다.

(2) 升降浮沈論의 原理

① 天地陰陽의 升降浮沈

天地陰陽의 升降浮沈은 天之分과 地之分으로 이루어지는 바, 天之分의 升浮는 “天以陽生陰長”⁹⁴⁾하고 地之分의 降沈은 “地以陽殺陰藏”⁹⁵⁾하는 원리로 설정된다.

첫째, “天以陽生陰長”하는 이치는 天氣가 主之하는 바⁹⁶⁾이다. 즉 天氣가 주관하여 春夏의 氣가 升浮함은 泉下에서 陰이 升하는 것으로 升降浮沈 하는 氣의 순환을 圓으로 象할 때 圓의 左半部인 天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天氣는 봄에 泉下의 陰을 升하여 활동을 개시⁹⁷⁾하는데 이를 少陽之氣라 한다. 百穀草木이 싹을 틔우고 출하니 生의 의미이다. 여름에는 초목이 자랄 수 있는 만큼 한껏 자라서 가지를 늘어뜨리고 잎을 퍼트리면서 長⁹⁸⁾하니 浮하는 氣가 만물에 작용한 것이다. 浮는 升한 氣가 外로 흩어지고 퍼지는 것이다. 이는 天地만물이 외형을 확장하고 팽창함을 의미한다. 이를 少陰之火라 한다. 따라서 春夏에 만물이 生長한다. 天이 陽生陰長하는 이치는 體用으로 설명되어 지는데 이를 東垣은 “陽이 用이고, 陰이 體이다.”⁹⁹⁾라 하였다. 天氣의 升浮하

는 작용을 體用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少陽은 引飲하여 泉下에서 시작¹⁰⁰⁾되니 升하는 것은 泉下라는 地陰의 位에 있던 것이므로 體는 陰이고, 오르는 운동성은 ‘升’이므로 用은 陽이다. 天氣가 少陽之氣의 升하는 속성에 따라 地에 해당하는 泉下의 陰을 끌고 올라가는 것이다. 이는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地氣가 위로 오르는 것이 구름(雲)이 되고, 구름(雲)은 天氣를 내보낸다.”¹⁰¹⁾라고 한 것과 그 논리 구조가 유사하다. 즉 상승하는 것은 地에서 出한 地氣이므로 陰이나, ‘上升’이라는 운동성 자체는 “陽升”¹⁰²⁾의 이치에 따라 陽이다. 그러므로 陽인 天氣를 出한다. “陽이 쌓여서 하늘(天)이 된다.”¹⁰³⁾는 이치에 따라 上升하는 기운이 쌓여서 天을 이룬다. 이는 地가 體고, 天이 用인 구조다. 마찬가지로 東垣의 體用설정도 春夏에 天氣가 주관하여 만물의 生長함이 升浮에 있다는 것은 上升의 실체와 上升의 작용을 氣의 ‘升浮’하는 운동성을 중심으로 인식하여 氣의 升浮를 “天氣主之”¹⁰⁴⁾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도 少陽之氣와 少陰之火의 개념을 陰陽體用의 인식방법을 사용하여 少陽-陽生하는 기운의 상태, 少陰-陰長하는 기운의 상태로 설정하여 陽의 始生하고 陰의 成長하는 ‘陽生陰長’하는 陰陽의 이치를 들어 이론화함으로써 天氣가 春夏에 生하고 長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氣가 升하고 浮하는 상태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地以陽殺陰藏”하는 이치는 地氣가 主之하는 바¹⁰⁵⁾이다. 地氣가 주관하여 秋冬의 氣가 降沈함은 太陰之運이 天을 起點으로 작동하여 아래로 降함을 말하는 것¹⁰⁶⁾으로 氣의 순환을 圓으로 象할 때 圓의 右半部인 地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地氣는 가을에 天에서부터 활동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太陰之運이 降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太陰之運이 天에서 下降을 시작하면, 金運과 燥令이 행해져 바람이 불고 서리가 날리면서 가지가 잎 없이 앙상하게 홀로 있으니¹⁰⁷⁾, 만물이 擴張과 膨脹을 멈추고 떨어 내기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꺾고 베어내는 ‘殺’의 의미로, 太陰의 작용이다. 겨울에는 少陰之氣가 다시 泉下로 숨어들어 만물은 周密해지고 물이 얼며 땅이 갈라지니¹⁰⁸⁾, 이는 氣의 ‘沈’으로 인해 만물이 藏하는 것이다. 이를 少陰之氣라 한다. 少陰은 안으로 모든 역량을 밀도 있게 凝縮하여 봄에 出, 生을 준비하는 象이다. 따라서 秋冬에는 氣가 降하여 ‘殺’로 드러나고, 氣가 沈하여 ‘藏’으로 드러난다. 地가 陽殺陰藏하는 이치는 體用관계로 설명되어 지는데 이를 東垣은 “陰이 體이고, 陽이 用이다.”¹⁰⁹⁾라 하였다. 地氣의 沈降하는 작용을 體用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太陰之運이 天에서 시작하여 下降하니 降하는 것은 天의 位에 있는 것이므로 體는 陽이고 내리는 운동성은 ‘降’이므로 用은 陰이다.

99) 上揭書. p 446. “陽之用 陰之體”

100) 上揭書. p 446. “少陽之氣 始於泉下 引陰”

101) 이경우 譯. 前揭書. 「陰陽應象大論」. p 159. “地氣上爲雲 雲出天氣”

102) 朱子, 白殿基 譯註. 前揭書. p 690. “天一肇判 陰降陽升”

103) 이경우 譯. 前揭書. 「陰陽應象大論」. p 155. “積陽爲天”

104) 『脾胃論』 「天地陰陽生殺之理 在升降浮沈之間論」 前揭書. p 446. “歲半以前 天氣主之 在乎升浮也”

105) 上揭書. p 446. “歲半已後 地氣主之 在乎降沈也”

106) 上揭書. p 446. “至秋 而太陰之運 初自天而下”

107) 上揭書. p 446. “金振燥令 風厲霜飛 品物咸殞 其枝獨在 若乎毫毛”

108) 上揭書. p 446. “至冬則少陰之氣 復伏於泉下 水冰地坼 萬類周密”

109) 上揭書. p 446. “陰之體 陽之用”

94) 『脾胃論』 「天地陰陽生殺之理 在升降浮沈之間論」 前揭書. p 445. “陰陽應象論云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

95) 上揭書. p 445. “陰陽應象論云 天以陽生陰長 地以陽殺陰藏”

96) 上揭書. p 446. “此所謂 天以陽生陰長 經言 歲半以前 天氣主之 在乎升浮也”

97) 上揭書. p 446. “然歲以春爲首 正也 寅 引也 少陽之氣 始於泉下 引陰”

98) 上揭書. p 446. “草木盛茂 垂枝布葉”

太陰之運의 降하는 속성을 따라 天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은 地氣의 속성이기도 하다. 이는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天氣가 내려오는 것이 비(雨)가 되고 비(雨)는 地氣를 내보낸다.”¹¹⁰⁾고 한 것과 유사하니, 즉 下降하는 것은 天에서 出한 天氣이니 陽이고, 下降이라는 운동성 자체는 ‘陰降’¹¹¹⁾의 이치에 따라 陰이다. 그러므로 陰인 地氣를 出한다. “積陰爲地”¹¹²⁾라 하여 下降하는 기운이 쌓여서 地를 이룬다. 이는 天이 體이고 地가 用인 구조다. 東垣의 體用설정은 秋冬에 地氣가 주관하여 만물의 殺藏((收藏)함이 氣의 ‘降沈’에 있다는 것은, 下降의 實體와 下降의 작용을 氣의 ‘降沈’하는 운동성을 중심으로 인식하여 氣의 降沈을 “地氣主之”하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太陰의 작용을 陽殺로 설정하고 少陰之氣를 陰이 藏하는 氣로 설정하여 陽의 殺하고 陰의 藏하는 “陽殺陰藏”하는 陰陽理致를 들어 이론화함으로써 地氣가 秋冬에 殺하고 藏하는 활동을 하며 이를 氣의 降하고 沈하는 상태로 인식했음을 알 수 있다.

② 四時循環-少陽·少陰·太陰·少陰

東垣의 四時순환에 대한 인식은 四象의 인식에 기반을 두고 다양한 측면을 통합하여 자신의 논지를 구성하였다. 四時의 少陽·少陰·太陰·少陰은 春夏秋冬의 生長收藏과 氣의 升降浮沈하는 象을 따른 것이다. 봄의 少陽은 春升之氣¹¹³⁾가 升하여 始生함을 象한 것이고, 여름에 少陰은 火를 의미하는 것으로 浮한 氣가 火의 象을 갖는 것을 의미하여 少陰之火라 하였고, 가을에 太陰은 天에서 降하여 殺¹¹⁴⁾로 드러나는 陰이다. 肅殺의 用을 가지는 肺에 해당하는데, 肺는 天의 위치에서 五臟의 근원이 되니 이것은 五運이 天에서 左遷하여 지로 내려오는 것과 상통하므로 太陰之運이라고 하였다. 겨울의 少陰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안으로 감추어져 내부에서 응축되는 것을 象한 것으로 少陰之氣는 그러한 象을 가지는 氣이니 泉下로 돌아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에 潛藏되어 있는 氣를 말한다. 이를 氣의 순환의 측면에서 보면 봄에 泉下에서 升하는 少陽之氣¹¹⁵⁾는 引陰하는 바, 四時·순환하여 겨울에 다시 泉下로 藏하는 少陰之氣¹¹⁶⁾는 동일한 陰으로 볼 수 있다. 즉 少陰의 氣가 다양한 상태로 순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봄에 泉下의 陰(少陰)이 升하고 여름에 君火之氣가 盛하고 겨울에 少陰之氣를 藏하는 순환으로 보면 地(陰, 水)를 중심으로 한 水升火降하는 순환을 의미하게 된다.

少陰之火와 少陰之氣의 두 가지 의미를 보면 첫째, 少陰을 중심으로 보면, 泉下의 水라는 실체와 火의 象을 의미한다. 둘째, 少陰의 氣와 少陰의 火에 중점을 두면, 氣와 火의 관계로서, 氣와 火는 天地上下の 位가 설정되는 바, 氣는 地의 위치에 있고, 火는 天의 위치에 있다. 泉下로 潛藏되는 少陰之氣는 곧 봄에 少陽之氣에 의해 升하는 氣다. 氣는 地에서 升하는 것이 생리이고, 火는

天에서 降하는 것이 생리이다. 氣가 升하지 못하면 火가 내려오지 않는 다¹¹⁷⁾. 이것이 東垣의 陰火이다.

少陽之氣와 太陰之運을 보면 少陽之氣는 升을 시작하는 氣이고, 太陰之運은 降을 시작하는 運이다. 이는 六氣가 地에서 右遷하여 天으로 升하고, 五運이 天에서 左遷하여 地로 降하는 것과 연관하고¹¹⁸⁾, 六氣는 六腑에 해당하고 五運은 五臟에 해당하니, 少陽之氣는 膽氣로서 升하여 生을 主하고, 肺는 天의 位에서 收下하여 五臟의 근원이 되니 太陰의 用에 해당한다. 少陽之氣는 升하여 陽이므로 “陽은 生을 담당한다.”¹¹⁹⁾라 하였고, 太陰之運은 降하여 陰이므로 “陰은 殺을 담당한다.”¹²⁰⁾라 한다. 따라서 春夏秋冬에 少陽, 少陰, 太陰, 少陰배속은 四象인식의 형식인 少陽, 太陽, 太陰, 少陰의 구조를 정합하게 취하지는 않았으나 그 의미를 취하여, 升하는 氣를 중심으로 하는 생리인식과 臟腑에 관한 인식, 氣와 火, 水와 火, 氣와 水의 연관에 대한 인식 등 東垣의 생리이론을 뒷받침하는 氣의 升降浮沈과 그에 따른 四時의 生長收藏을 四象의 의미로 드러낸 의미구조이다.

③ 天地陰陽의 升降·體用

天은 上에 있고 地는 下에 있어 上下의 極處이며, 氣의 升降의 體가 된다. 天氣가 升浮하고 地氣가 降沈하는 것은, 天은 升하는 陽氣가 쌓여 이루어진 것¹²¹⁾이므로 升浮가 天氣의 물리적 속성이 되고, 地는 降하는 陰氣가 쌓여 이루어진 것¹²²⁾이므로 降沈이 地氣의 물리적 속성이 된다. 天氣와 地氣의 순환으로 보면 升하는 陽氣와 降하는 陰氣가 되풀이되어 순환하는 것이다.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天地氣의 交通을 “陽은 위로 오르고 陰은 아래로 내려간다.”¹²³⁾의 理致와 陰陽體用구조를 통해 드러내었다. 먼저 天地는 上下에 位를 定¹²⁴⁾하고, 天은 陽이 쌓여 위에서 된 것이므로 陽이고, 地는 陰이 쌓여 아래에서 형성된 것이므로 陰이다. “地氣는 상승하여 雲이 되고, 雲은 天氣를 出한다.”¹²⁵⁾를 풀이하면, 地는 地氣로 드러나고 地는 陰이라 降하는 것이 이치인데, 地氣가 상승(地氣上)하므로 그 작용이 陽의 작용이다. 上升하는 陽의 작용이 集積되어 天을 이루니 이것이 雲이 天氣를 出하는 이유다. 이를 陰陽體用구조로 보면, 상승하는 것은 地氣이므로 體는 陰이고, 상승하는 작용 그 자체는 陽의 속성이므로 用은 陽이다. “天氣는 하강하여 雨가 되고, 雨는 地氣를 出한다.”¹²⁶⁾를 풀이하면, 天은 天氣로 드러나고, 天은 陽이라 升하는 것이 이치인데, 天氣가 下降(天氣下)하므로 그 작용이 陰의

110) 이경우 譯. 前揭書. 「陰陽應象大論」. p 159.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111) 朱子, 白殷基 譯註. 前揭書. p 690. “太一肇判 陰降陽升”

112) 이경우 譯. 前揭書. 「陰陽應象大論」. p 155.

113) 『脾胃論』 「脾胃虛實傳變論」 前揭書. p 405. “少陽春升之氣 春氣升則萬化安”

114) 『脾胃論』 「陰陽壽夭論」 前揭書. p 446. “天之元陽 其精 遇秋而退 降墜於下 此五運左遷入地 陰主殺”

115) 『脾胃論』 「天地陰陽生殺之理 在升降浮沈之間論」 前揭書. pp 445-446. “然歲以春爲首 少陽之氣 始於泉下”

116) 上揭書. p 446. “至冬則少陰之氣 復伏于泉下”

117) 『脾胃論』 「脾胃勝衰論」 前揭書. p 409. “由精氣不輸於脾 不歸於肺 則心火上攻”

118) 『脾胃論』 「陰陽壽夭論」 前揭書. p 446. “且如地之伏陰 其精 遇春而變動 升騰於上 即曰生發之氣 升極而浮 即曰蕃秀之氣 此六氣右遷於天 乃天之清陽也 陽主生 故壽 天之元陽 其精 遇秋而退 降墜於下 乃爲收斂·須傷之氣 降極而沈 是爲閉藏之氣 此五運左遷入地 乃地之濁陰也 陰主殺 故天”

119) 上揭書. p 446. “陽主生”

120) 上揭書. p 446. “陰主殺”

121) 朱熹, 강상섭 해설. 前揭書. p 60. “所謂天者 陽之輕清而爲乎上者也”

122) 上揭書. p 60. “所謂地者 陰之重濁而爲乎下者也”

123) 朱子, 白殷基 譯註. 前揭書. p 690. “太一肇判 陰降陽升”

124) 朱子, 白殷基 譯註. 前揭書. pp 527, 529. 繫辭傳의 “天尊地卑 乾坤定矣 卑高以陳”에 대하여 周子は “卑高者 天地萬物上下之位”라고 注하였다.

125) 이경우 譯. 前揭書. 「陰陽應象大論」. p 159. “地氣上爲雲 雲出天氣”

126) 上揭書. 「陰陽應象大論」. p 159. “天氣下爲雨 雨出地氣”

작용이다. 下降하는 陰의 작용이 集積되면 地를 이루니 이것이 雨가 地氣를 出하는 이유다. 이를 陰陽體用구조로 보면 下降하는 것은 天氣이므로 體는 陽이고, 下降하는 작용 그 자체는 陰의 속성이므로 用은 陰이다. 天地陰陽이 陰陽體用的 구조로 陽升陰降의 이치에 따라 交通하니 서로 근원이 되고 서로 쓰임이 된다. 이는 泰卦¹²⁷⁾의 象으로 地氣가 상승하고 天氣가 하강하는 天地交通의 象이다. 東垣은 四時에 따른 氣의 升降浮沈을 봄에 泉下에서 升하고, 여름에 天의 位에서 浮하며, 가을에 天에서 降하고, 겨울에 다시 泉下로 沈하는 것을 “陽升陰降”의 이치에 따라 天氣와 地氣의 속성으로 나누어 말했으나 결국 升降浮沈은 一氣의 부단한 循環이라고 하였다.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따르면 上升之氣가 天을 이루고 下降之氣가 地를 이루니 天地는 결국 一氣의 升降에 따라 형성된 것이고, 天地가 생긴 이후에 天地陰陽이 각각 上升과 下降을 맡아 담당하는 것이니 이는 一氣의 消長, 進退의 법칙이 陰陽二氣의 법칙으로 나누어진 것으로 一分爲二의 법칙이다. 一氣의 一元的 循環이 天氣와 地氣의 二元的 循環으로 분리되는 것이니, 이것의 合이 전체의 흐름이 되는 것이다. 一氣로 보면 처음의 升浮는 降沈의 전제조건이 되어, 처음에 ‘升’이 없다면 그 다음의 흐름이 이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東垣은 처음 陽氣의 始生을 少陽春升之氣¹²⁸⁾라 하여 중요하게 생각하고, 升浮하여 春夏의 生長을 이루는 것이 壽의 조건¹²⁹⁾이며 질병을 보는 관점이며 치료의 원칙이 된다. 따라서 東垣은 “履端으로부터 순서대로 진행함”¹³⁰⁾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四時에 氣가 升降浮沈하는 것은 곧 春夏秋冬의 溫和, 暑熱, 清涼, 冷冽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근거가 되고, 이것이 氣의 바른 순서¹³¹⁾임을 알 수 있다.

(3) 人的 升降浮沈

東垣은 『陰陽升降論』에서 “易에서 兩儀는 四象을 생한다고 하였으니 이는 곧 天地氣가 교류하여 八卦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清濁之氣가 모두 脾胃에서 出하는 榮氣이니 榮氣는 몸을 영양한다. 이는 곧 水穀의 氣味가 변화한 것이다.”¹³²⁾고 하여 인체를 자양하는 清濁之氣의 근원이 脾胃라고 하였다. 兩儀를 清濁으로, 天氣와 地氣를 清氣와 濁氣로, 清濁으로 분화이전의 元氣를 人에서는 水穀에서 出한 榮氣로 보았다. 『陰陽升降論』에 나타난 清濁之氣의 속성과 구조, 인체의 구성 및 생리와의 연관은 다음과 같다.

첫째, 清氣는 升하는 陽氣고, 濁氣는 降하는 陰氣이다. 둘째,

清氣는 升하는 陽氣로서 天을 이루고, 濁氣는 降하는 陰氣로서 地를 이룬다. 셋째, 升하는 清氣는 水穀의 精氣이고, 降하는 濁氣는 五穀五味의 精으로 五味가 化한 것이다. 넷째, 東垣은 人을 形과 氣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그것의 실체를 氣血이라고 보았다. 『陰陽升降論』의 “清陽爲天”條下에 “清陽成天 地氣上爲雲 天氣下爲雨 水穀之精氣也 氣海也 七神也 元氣也 父也”¹³³⁾라고 한 문장은 人的 氣에 관한 것이고, “濁陰爲地”條下에 “疊陰成地 雲出天氣 雨出地氣 五穀五味之精 是五味之化也 血榮也 維持神明也 血之府會也 母也”¹³⁴⁾라고 한 문장은 人的 形인 血에 관한 것이다. 즉 清氣는 人的 氣를 구성하는 바탕이 되고, 濁氣는 人的 形을 구성하는 바탕이 된다. 즉, 清氣는 升하여 天을 이루니, 人的 天, 陽, 氣에 해당하는 氣海요 元氣이고, 氣가 드러난 것인 七神이다. 濁氣는 降하여 地를 이루니, 人的 地, 陰, 形에 해당하는 血榮이고 血之府會인 血脈이며, 血을 바탕으로 발현되는 神明이다. 다섯째, 清濁之氣는 清濁의 輕重에 따라 “兩儀生四象”¹³⁵⁾의 원리로 한 번 더 分化하여 清氣는 清中清者, 清中濁者로 分化하고, 濁氣는 濁中清者, 濁中濁者로 分化한다. 清中清者는 ‘升’하여 ‘上’으로 향하고, 清中濁者는 ‘浮’하여 ‘外’로 퍼지며, 濁中清者는 ‘降’하여 ‘下’로 향하고, 濁中濁者는 ‘沈’하여 ‘內’로 향한다.

이는 清濁의 輕重에 따라 氣가 운동하는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에 따른 분류이다. 즉 一氣의 升浮降沈순환을 升·浮·降·沈의 네 단계로 나누어 清濁四氣인 清中清, 清中濁, 濁中清, 濁中濁이 각각 升·浮·降·沈하여 그것의 合이 전체의 氣化를 이루고, 각 단계를 담당하는 清濁四氣의 생리가 升降浮沈과 연관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陰陽升降論』에서의 升降浮沈論은 清濁之氣의 升降構造를 통해 形氣로 구성된 人身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인 생리로 드러내었다. 특히 濁中清者와 濁中濁者의 내용은 形에 관한 東垣의 구체적 인식과 그 원리가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形을 중심으로 한 東垣 생리론의 내용이 잘 드러나고 있다.

결론

東垣 『脾胃論』이 가진 생리이론에 이론적 기반을 세우고자 東垣 『脾胃論』의 전체적 맥락에 근거하여 생리기반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을 『脾胃論』의 認識論, 原理論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脾胃論』의 認識論은 坤元의 象과 耕種하는 土의 의미를 지닌 地를 인식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脾胃는 五行중 土가 지닌 統合하는 수동적인 의미와 함께 脾는 主靜而不動하여 有形之土로서 質이 되고 胃는 主動而不息하여 일체 元氣의 바탕이 되어 인체변화의 시작과 마무리, 완성 모두를 직접 끌어안는 기반으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脾胃論』의 原理論은 形體를 드러냄을 기반으로 변화기틀을 찾는 形氣論과 그 변화의 순환과정으로 변화기틀을 드러내는

127) 朱子, 白殿基 譯註. 前掲書. p 145. “坤上 乾下”, “泰 通也 爲卦天地交而二氣通 故爲泰 正月之卦也”

128) 『脾胃論』 「脾胃虛實傳變論」前掲書. p 405. “少陽春升之氣 春氣升 則萬化安”

129) 『脾胃論』 「陰陽壽夭論」前掲書. p 446. “夫陰精所奉者 上奉於陽 謂春夏生長之氣也”, “且如地之伏陰 其精 遇春而變動 升騰於上 卽曰生發之氣 升極而浮 卽曰蒼秀之氣 此六氣右遷於天 乃天之清陽也 陽主生 故壽”

130) 『脾胃論』 「天地陰陽生殺之理 在升降浮沈之間論」前掲書. p 446. “履端於始 序卽不愆”

131) 上掲書. p 446. “至於春氣溫和 夏氣暑熱 秋氣清涼 冬氣冷冽 此則正氣之序也”

132) 『脾胃論』 「陰陽升降論」前掲書. p 447. “易曰 兩儀生四象 乃天地氣交 八卦是也 在人則清濁之氣 皆從脾胃出 榮氣 榮養於身 乃水穀之氣味化之也”

133) 上掲書. p 447.

134) 上掲書. p 447.

135) 上掲書. p 447.

升降浮沈論을 원리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脾形-胃化’하는 形氣論은 形을 ‘有之象’으로 ‘有形之物’로 氣를 ‘無之象’ ‘無形之氣’으로 구분하였고, 形氣의 상호관계는 氣가 裏(中, 속)에 있고 形이 表에 있는 氣裏形表관계로 보았으며, 形氣의 상호운동 원리는 氣는 內(裏)를 향하여 운동하고, 形은 表를 향하여 운동하여 內의 形이 外로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外의 氣가 內로 끊임없이 流入, 蘊蓄되어야 形·化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보았다. 升降浮沈論은 春夏에는 天氣가 主하여 升浮로 陽生陰長하고, 秋冬에는 地氣가 主하여 降沈으로 陽殺陰藏하는 원리를 바탕으로 少陽之氣, 少陰之火, 太陰之運, 少陰之氣를 春夏秋冬에 배속하여 內經의 四象구조(少陽·太陽·太陰·少陰)를 정합하게 취하지 않음으로써 地를 기반으로 하는 원리구조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참고문헌

1. 洪元植 編著. 中國醫學史.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4.
2. 李東垣. 中國醫學大系13. 서울, 여강출판사, 1998.
3. 吳少禎. 李東垣生平 著作 學術考辨. 黑龍江中醫藥大學. 博士學位論文. 2003.
4. 吳文設, 王蘭玉. 略論李東垣脾胃升降功能. 四川中醫. 24(1), 2006.
5. 孫愛萍. 淺論脾胃是氣機升降之樞紐. 中醫藥學刊. 5(2), 1986.
6. 劉燮明. 脾胃論陰火辨析. 貴陽中醫學院學報. 14(4), 1992.
7. 徐子評. 對李杲“火傷元氣”學術思想的幾點認識. 湖北中醫雜誌. 1(1), 1979.
8. 蔡小平. 談甘溫除熱之理法方藥. 浙江中醫藥大學學報. 20(6), 1996.
9. 陳柱杓 註釋, 東醫文獻研究室 再編輯. 金元四大家醫學全集. 서울, 법인문화사, 2007.
10. 朱子, 白殷基 譯註. 譯註 周易本義. 서울, 여강출판사, 1999.
11. 莊子, 안동림 譯註. 莊子. 서울, 현암사, 1993.
12. 成百曉 譯註. 懸吐完譯 周易傳義 上. 서울, 傳統文化研究所, 1998.
13. 陳鼓應.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14. 李慶雨 譯. 編注譯解黃帝內經素問1. 서울, 여강출판사, 1994.
15. 김광중, 김완희. 臟腑學의 이론과 임상. 서울, 일증사, 1996.
16. 앤저슨 그레이엄, 나성 옮김. 도의 논쟁자들. 서울, 새물결, 2003.
17. 李杲 原著,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제8기졸업준비위원회 譯. (國譯)內外傷辨惑論 蘭 室秘藏. 서울, 대성문화사, 1993.
18. 李慶雨 譯. 編注譯解黃帝內經靈樞3. 서울, 여강출판사, 2000.
19. 朱熹. 강상섭 해설. 易學啓蒙. 서울, 예문서원, 1999.
20. 王弼, 임채우 옮김. 왕필의 노자. 서울, 예문서원, 1999.
21. 정용환. 장재의 철학. 서울, 경인문화사, 2007.
22. 야마다케이지, 김석근 옮김. 朱子の 自然學. 서울, 통나무, 1991.
23. 河根浩. 黃帝內經 素問 陰陽離合論에 관한 研究. 大邱韓醫大學校, 博士學位論文. 2003.
24. 李東垣. 東垣十種醫書. 台北, 五洲出版社, 1984.